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 編輯 印刷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近衛內閣成立

—政局安定의 試金石—

一

國內相剋解消와 擧國一致强力內閣實現의 重大使命을 背負하고 出馬한 近衛公은 大命을 拜受한지 三日만에 組閣工作을 完了하고 四日親任式을 擧行하야 玆에 新內閣의 成立을 告하게 되엿다。今回의 組閣工作이 最近數次經驗한 政變時의 例와 달라 順調로 進捗되엇슴은 첫재로 政局安定을 希求하는 時代의 要求가 多分으로 作用하엿슬것이며 둘재로 最近 政變이 잇슬때마다 內閣首班에 자주 近衛公이 物議되엿든만큼 그에 對한 一般의 信望이 두터웟든것도 커다란 도음이 되엿슬것이다。그리하야 近衛公은 從來에잇서 重大難關으로 指目되여온 軍部大臣의 入閣內諾을 이미 組閣第一日에 獲得하기에 成功하고 對政黨關係에잇서서도 過日 關西로부터 歸來하는 途中車中談으로 披瀝한 「政黨中에서 入閣시켜 時局을 收拾할것」이라는 時局觀을 몸소 實踐하야 政黨出身閣僚까지 入閣시켜 人才中心의 擧國一致內閣을 實現시킨것이다。

二

近衛內閣의 順調로운 成立은 林內閣當時의 政府對政黨의 拮抗、좀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林內閣으로 하여금 解散을 斷行케한 推進勢力과 그 解散을 非立憲的行爲라하야 倒閣에 氣勢를 올리든 一部勢力과의 軋轢에서 誘致되엿든 不安한 政局에 一條의 淸新氣運을 注入한 觀이 잇는同時에 軍部 官僚 政黨等各方面의 有力한 人材를 網羅하기에 成功한것은 그 前途에 多大한 實行力이 期待되는바도 잇다。그러나 各閣僚의 面貌를 좀더 仔細히 살피면 現內閣은 革新勢力을 代表하는 各派와 現狀維持乃至復古를 希望하는 各派의 寄合內閣으로도 觀察된다。여기서 軍部大臣의 條件附留任、馬場前藏相의 內相親任과 企畫廳總裁兼任說 廣田前首相의 外相就任 其他 鹽野法相의 留任等等은 廣田內閣以前의 政策 再說 乃至强化를 豫想케하는 反面에 生産力擴充과 生活安定이 現內閣의 存立使命인만큼 賀屋新藏相이 如何한 政策과 手法으로써 軍備擴充과 生活安定의 兩者를 調理하야 所謂非常時局을 打開할는지 그前途는 如前히 樂觀을 不許한다。

三

特히 各閣僚의 背後勢力을 考察하면 廣田內閣時代에서 發端하야 林內閣時代에 이르러 一層激化된 國內相剋의 弊는 軍部、政黨、官僚各方面에 信望이 敦厚한 近衛公의 人材網羅를 基調로한 組閣으로 一段解消되엿다 할것이나 그러나 廣田外相 馬場內相을 再任한것이라든지 兩軍部大臣을 그대로 留任시킨것은 明確히 一部革新勢力에 對한 迎合인 反面에 政友民政의 旣成政黨으로부터 各其一名式의 閣僚를 拔擢한것은 好意로 解釋하면 擧國一致의 實을 擧하기爲한 意圖의 實現이라할 것이나 그러나 政黨出身閣僚의 入閣交涉은 人材本位라는 名目下에 政民兩黨에 正式交涉을 行치안코 個人의資格으로 入閣시킨것은 擧國一致를 標榜하면서 政黨을 輕視한 行爲가 아닌가하는 印象을 濃厚케함으로 政府對政黨關係는 依然 融合되지못할 것이며 따라 國內相剋의 弊는 아직도 解消되지 못하엿다할것이다。

四

그러면 近衛內閣은 如何한 方策으로 現內閣의 缺陷을 補足하야 名實共히 革新政策을 遂行할수잇는 强力內閣의 完成을 企할것인가。公은 일직부터 新黨의 黨首로 指目되여온것은 周知의 事實이다。特히 今般組閣에 잇서 貴族院으로부터 馬場 有馬伯을、政友 民政으로부터 中島 永井兩氏를 起用한것은 新黨樹立을 前提로한 布陣이 아닌가 思料된다。特히 最近軍部方面에 新黨要求가 猛烈한것과 또는 旣成政黨으로 볼때 倒閣成功으로 多少 意氣는 恢復하엿슬망정 아직 積極的動向을 示現하지못하는것으로보아 政民聯携도 今後何等 期待할바가 업슴으로 時勢의 推移도 自然旣成政黨에 疏隔하는 感이 잇슴은 一般으로 이運動의 進展을 促進하는 實果이다。그러나 具體化함에는 旣成政黨의 倒閣成功의 餘勢를 모라 이에 對處할것임으로 巷間에는 重大難關도 豫想되지안는바는 아니다 特히 政黨出身閣僚인 中島 永井兩氏의 向背 따라 그와去就를 가치할 黨의 中堅分子의 動向이 新黨成否의 重大樞軸이될것인바 그推移는 近衛內閣의 前途와함께 注目된다。

國內的相剋摩察緩和코 社會正義實現에努力

國民全體와손잡고 國民全體援助要望

首相談의形式으로 新內閣政策聲明

近衛新首相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四日初閣議散會後 內閣의政綱政策을 談話形式으로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政綱政策의 具體的의것은 아직 말할수업스나 개벼운 意味로 大體를 말하려고 생각한다 組閣의 大命을 拜한날에 말한것과가티 從來와가튼 對立相剋을 國內에서 繼續하여간다면 外國으로부터 업수이역이게될것이 大端히 念慮됨으로 될수잇는대로 相剋摩擦을 緩和하여가려한다 利害情實、黨派因緣에依한 對立은 될수잇는대로 現下 非常時局에 鑑하야 各人의 自省에 依하야 摩擦을 적게하여주기바란다。時局認識의 相違에 基한 對立은 어느程度까지 不得已하나 內外情勢에 鑑하야 我等은 서로 自己의立場을 떠나서 懇談하여간다면 그리 極端的 對立도업게될것이아닌가 그러타하더라도 다만 잘懇談만한다고함은 無理함으로 어느指導原理下에 對立을 업새고저함이 內閣의 使命이라고생각한다 其他具體的의것은 今後 더욱 閣議에서 여러가지 意見이나올줄아나 總理大臣으로서의 余의생각은 對外的으로는 單純한 現狀維持의 平和가아니오 國際正義에 基한 眞實한平和를 確立함에 努力하려하며 國內에잇서서는 社會正義에 基한施設을 될수잇는대로 實現하도록努力하려한다 今日은 內外로 改革할일이 山積하여잇스므로 一內閣으로서 全部를 實現完成할수는 업슬것이나 今日初閣議에서도 各閣僚에 對하야 閣內一致、同心、小異를 버리고 大同에 竭力하는 精神으로 全力을 다하기바란다고 述하엿다 하여튼 國民全體와 손을잡고 國運이라고할가 卽國家의 進運을 爲하야 竭力하려고생각한다 具體的의것은 後日에 發表할터이나 今日의 余의 생각으로서는 다만國民全體와 손을잡고 또 國民全體의 援助를 바라고저생각한다

나치스의 墺首相 暗殺計畫暴露!

飛機로 官邸爆擊意圖

【維也納三日發同盟】墺太利政府는 三日首相슈시닉博士暗殺計畫이 未前에發覺된旨를 發表하엿다 警察當局은 이미犯人九名을 逮捕하야 嚴重히取調中인데 犯人은 모도 나치스分子로서 飛行機로부터 首相官邸에 燒夷彈을 投下하야 首相을 燒殺할計畫을 進行하엿다는旨를 自白하엿다

安全保障案 英政府서提示

【倫敦三日發同盟】이든外相으로 이쿠란드號事件을 契機로한 事態收拾策에對하야 佛國政府와折衝한結果 西班牙近海의 安全保障및 國際監視隊의 協力案에對하야 具體案을 作成하야 三日午後伊太利大使그란디及 獨逸大使폰·리벤트로프兩氏를 外務省에招致하고 그內容을提示하는 一方 巴里、伯林、羅馬各國駐箚英國大使를通하야 直接으로佛獨伊三國政府에 通達하엿다 大體로獨逸政府는 受諾할模樣이나 伊太利政府의意向은 아직判明치안타 그런데 이新處理案의 骨子로傳하는바는 如左하다

一、安全中立地帶를擴大하야 西班牙兩交戰團體에對하야 中立地帶尊重을 要求할것

二、國際監視隊의 共同工作에對하야는 各國監視隊는 共同動作을取하되 西班牙東의 不法行爲에對하야 모든處置를取할境遇에는 미리 關係各政府와 商議를行할것

그런데 監視隊의 共同動作에對하야는 獨逸政府는 連帶責任을 要求하엿스나 英佛兩國政府는 深入을念慮하야 右와如히 緩和하엿다한다

對西干涉積極化 獨艦六十隻出動

【코펜하-겐三日發同盟】도이취란드號爆擊以來 西班牙內亂을圍繞하고 國際關係는 無氣味한緊張을示하고잇는데 最近獨逸軍艦六十隻은 全速力으로 킬運河를 西方으로 通過하야 北海에向하엿다한다 勿論軍艦의通過에際하야 商船의通過는 一切禁止하엿다 傳한다

【伯林三日發同盟】獨逸政府는不干涉委員會와의不協力聲明後 西班牙近海에艦隊를 出動시켯는데 三日도 水雷艦리겔號및 리스號兩艦은 西班牙方面으로出動하엿다

貴院制度改革 近衛公에期待莫大

【東京電話同盟】廣田內閣時代로부터 懸案으로된 貴族院制度改革에對하야 貴族院各派는 近衛內閣의손으로 相當히 果敢한改革이實現될것이라 期待한다 即近衛公은 일직이廣田內閣當時 貴族院改革을提唱하야 同公의 所屬한火曜會가 中心이되여 去六十九議會에 貴族院改革에關한建議案을 提出하야 貴族院은 全會一致로써 通過하엿스나 當時의廣田內閣에熱意가업서서 다만겨우 貴族院制度調査會를 設置함에 不過하엿스므로 近衛公自身도 廣田內閣의 態度에對하야 적지안흔 不滿을가젓던것이다 그런데 新內閣에는 近衛公外 改革에 熱

較的容易하다고 觀測된다 또同案을 提出한다면 貴族院制度調査會와가튼 機關에 諮問치안코 企劃廳 又는 法制局에서 立案시킨後 即時 議會(貴族院)에 提出할模樣임으로 時期는 大體來通常議會 又는 그以後로될것이다

新內閣閣僚의面貌(二)

外相 廣田氏

廣田內閣의 가는길이 막달은 목에 다다첫슬때에 누군가 廣田은 總理大臣으로보다 外務大臣으로 가 더빗나고 또適任者라고 말한사람이 잇거니와 氏에게는 事實 外交가 第一長技일지도 몰은다 아닌게 아니라 그의 外交官으로서의 手腕은 廣田外交라는 말까지 생겨낫스리만큼 有名한 것이엿다 氏가 犬養內閣時代의 所謂焦土外交를 물리치고 和協外交를 提唱하야 世上에서 危機라고 불으지즈면 綦然히 危機가 잇스면 外交工作으로 平和裡에 解決한다고 한것은 有名한 이야기거니와 그는 至極히 沈着하야 理論問題를 實地問題로 誘導하는데는 놀날만한 才能을가젓다고한다 駐蘇大使時代에 日蘇間漁業問題、在滿蘇聯資産問題、朝鮮銀行問題를 一擧에 解決한것이라든지 齋藤內閣때에 滿洲國承認上 日米間感情緩和、岡田內閣時代에 北鐵讓渡問題、軍縮脫退等 그어느것이나 다 重大한問題인데도 한결가리 그解決에 成功한것은 그의 外交官으로서의 力量을 말하고남음이잇슬것이다 그러나 이와가튼 名外交의廣田을 가진廣田內閣이 今年봄에 外交의失敗로(勿論 財政其他軍部對政黨關係도잇지만)辭職을 햇다는 것은 一便今日기도 한것갓지만 여기에는 時局이라는것을 생각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여기서 現時局과 名外交家廣田을 비겨볼때 더욱 氏의內閣때에 올켜노흔 日中問題 蘇聯問題를 엇더케 解決할것인가하는것은 가장 注目을 끄는點이다 이제그의經歷을 簡略히 紹介하면 明治十一年 福岡縣出生으로 同三十八年에 東大法科政治科卒業、同三十九年에 外交官及領事官試驗에 合格하야 北京에 赴任하엿고 歐洲大戰當時는 英國에 잇섯고 大隈內閣때에는 外務省通商局第一課長 駐米大使館 一等書記官 參事官 外務省情報部次長 歐米局長 特命全權公使 蘇聯駐箚를 歷任하고 昭和八年 齋藤內閣 昭和十年 岡田內閣때에 前後兩次外務大臣에 就任하얏고 二、二六事件直後에 非常時日本政局을 떠메고 廣田內閣을 組織하얏다가 今春一月에 總辭職을 斷行한것은 아직 記憶에도 새롭거니와 그의 經歷으로볼때에 그의 外交官으로서의 力量을 한層 더 뚜렷히 엿볼수잇다

內相 馬場氏

近衛內閣에잇서서 氏가 外相廣田氏와함께 二大支柱인것은 틀림업다 그러나 廣田內閣時代의 大藏大臣으로서의 氏는 增稅、爲替統制、豫算膨大等等으로 國民에게 더구나 政黨에는 조흔印象을 주지못하얏다 뿐만아니라 廣田內閣의 退却은 馬場의 財政政策과 外交問題에 잇섯든것이 아닌가 엇던 政治評論家는 그를 財政家가 아니라 法務官이라고한사람이 잇거니와 事實 그는 法學博士이다 뱃심조키도 有名하거니와 또한 才能도 잇는 사람이다 勸銀總裁로 잇슬때에는 日銀總裁로 指目되든 惑星的存在다 인제 그러나 저러나 廣田內閣의 參議엿고 이번에 隱然히 그와가튼 地位로 內相에 就任하얏슴뿐아니라 軍部와도 理解가 깁흔官僚라 다음번이나 그다음번에는 超然內閣(또되면)에는 總理가될 順序가 아닌가 그냇심으로 기대려볼것이다 꼿꼿로 經歷을 紹介하면 氏는 明治二十一年 東京에서出生 同三十六年 東大政治科 法科卒業 稅務監督局事務官을 거처 朝鮮에 와서·統監府書記官 財務監査官으로 잇섯고 法制局 十六年間에 參事官으로부터 法制局長、다시 貴族院議員에 互選되얏스며 昭和二年 勸銀總裁 廣田內閣에 藏相으로서 이러케 官界를 헤여질처나온것이다

廣田氏再出馬에 中國側多少失望

三原則再提示念慮로

【南京四日發同盟】廣田外相의再出馬에 關하야 中國은 意外의 感을 抱懷하엿다 佐藤外相의 留任을 相當히 期待하고잇든만치 幾分失望의빗치보인다 外交部方面에서는 批評을 保留하고잇스나 廣田氏는 이미 試驗濟이오 對中三原則을 再次提起되는것이 아닌가 念慮하고 廣田外相이 此際 余然 새로운 認識下에 中國의 統一建設에 同情하는 態度로써 臨하도록 그것만 希望하고잇다 中國側은 從來 屢屢히 發表된 新首相近衛公의 對中見解에 充分한 好意와 期待를가지고 잇슴으로 廣田外交에 對한 此種杞憂의念도 어느程度 解消되리라고 專혀近衛公에 期待를하는模樣이다

馬場氏의起用은 將來의癌!

貴族院側新內閣觀

【東京電話同盟】貴族院各方面의 近衛新內閣에對한 批評은大體로左와如하다

新內閣閣僚의面貌를 살피면 近衛首相이 組閣當初 貴族院其他各方面의人材를모아 擧國一致內閣組織을 表明하엿스나 반드시 一流의人材를 어덧다고는 할수업다 政黨에서는 永井 中島兩氏 貴族院에서는 有馬伯을마지하엿고 重要한外相椅子에 廣田氏를것고 官界新進의逸材安井大阪府知事를拔擢한것은 大膽한成功이라할것이다 그러나 彭大豫算을編成하야 自못不評을바더고 社會一般에影響을끼친 馬場前藏相을 內閣에起用하야 副總理格으로 한것은 將來近衛內閣의癌이되지안흘가 그리고이點에對하야 近衛公으로하야곰 再考할餘地는 업섯든가 그리고 書記官長에 野에잇서서 洗練된 風見氏를 어든것은 成功이라할것이다

民意를尊重하면 貴族院도好意로支援

【東京電話同盟】貴族院各方面에서는 淸新明朗한 近衛新內閣에 對하야 非常한 期待를가지고잇는데 政綱、政策의 發表는 아직업스나 그 態度는 明示할수업스나 民意를 充分히 尊重하고 非常時克服에 必要한政策을 揭揚하야 邁進한다면 議會에잇서서도 될수잇는대로 好意的支援을 與하야 政策의 實現을 容易케할 意向을 가지고잇다 또研究會方面에서는 政務官問題에對하야 林內閣은 全然政務官을 任命치안헛기때문에 議會에 잇서서 議案審議에 적지안흔 支障을 招來하엿다 그러나 從來와가티 各省에 二名의 政務官은 必要치 안흠으로 一人으로 改定할것 又는 時局의 重大性에鑑하야 內閣總理大臣및 書記官長의 政務는 顯著히 增大複雜化하여젓스므로 內閣直屬의 政務官三名 乃至 五名을 新設하야 首相、藏相의 補助機關이되게하라는 意見이잇스며 織田信恒子와가튼이도 熱心히 主唱하는者이므로 近近 首相 又는 書記官長에 進言하게될 터이다

馬場內相首腦部銓衡

【東京電話同盟】馬場內相은 四日午後初閣議終了後 內相官邸에 廣瀨社會局長官을 招致하고 內務次官就任의交涉을 할터인데 廣瀨氏의受諾은 確實하다 또警視總監 警保局長은 馬場內相 安井文相 河原田前內相및 廣瀨社會局長官사이에 多少意見의 間隔이잇스므로 決定하기까지에는 曲折을 免치못할模樣인데 順調로進行하면 次官更迭과同時에 發令될터이다

政民聯繫陣强化 新內閣動向監視

新閣僚面貌에 新黨氣運顯著

兩黨前途에 多難豫想

【東京電話同盟】政民兩黨聯携實行委員會는 四日午前十一時부터 丸之內會館에서 開會되엿는데 政民聯携의 第一目的인 林內閣倒潰가 達成되고 近衛內閣이 成立되엿스나 我等은 兩黨聯携의 眞目的인 憲政擁護擧國一致强力內閣의 使命을 達成키爲하야 今後 더욱 聯携를 鞏固히 하여가려한다 新內閣은 그組閣方法및 閣僚面貌를 보매 所謂新黨工作의 氣運이 顯著히 觀取되여 兩黨의 前途가 多難한듯함으로 聯携의 힘을 緩和치안코 新內閣의 動向을 嚴重히 注視하자는 旨의 意見의 開陳이잇섯는데 一同이 이에 贊意를 表하고 爲先 倒閣目的을 達成하엿슴으로 倒閣本部及實行委員會는 解散하나 今後措處에 對하야는 兩黨幹事長에 一任하고 聯携運動을 進行하기로하고 左와如한 決議를하고 午後二時 散會하엿다

決議

政民兩黨은 時局認識에 對하야 同一한 精神으로써 그步調를 함께한 結果 非立憲的인 林內閣打倒의 目的을 達成하엿다 따라서 今後吾人은 曩者聲明한 共同聲明의 趣旨에 則하야 더욱 兩黨聯携를 緊密히하야 憲政發達을爲하야 努力하려한다

夕刊後市況 四日

◆橫濱 生糸 後引◆ 當限七九〇〇〇 先限七九六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八一七〇 先限八二二〇

嬰兒丸 영아환
어머니의偉大한힘
小兒 肝氣驚風
小兒藥의元祖
營養素의含有
어린아희를生育하는것은어머니의偉大한힘이외다 그러나不知中에襲來하는急한症勢에는어머니도 能히征服할수업시 귀여운子女를 일허버리는 일이얼마나 만습닛가 實로어린아희의 生命을代身할수잇는藥은이嬰兒丸뿐이니
滿天下의 어머니들이시여 언제나 一匣式常備하여두시요 그리하면 당신의偉大한 힘도더욱더날것이외다
效能 小兒肝氣·驚風·乳滯·吐乳 背便·身熱·夜啼·泄瀉·嘔氣 胃腸病·胎毒·丹毒·等
(定價＝二〇—三〇—五〇)
全鮮各道藥房에서팝니다
發賣本舖 朝鮮商會 京城府授恩町三三番地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頭取 有賀光豊
資本金參千萬圓

靑少年 通信社員募集
小學卒業程度 自宅執務可能 高尙、愉快한業務(事務簡易) 月收多大、略歷記入葉書申込次第詳細書無代進呈
和歌山市新內町 昭和通信社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圖解で上達の極意公開!タッタ七日で上達する
特價一圓
景品進呈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 振替大阪九六〇一四 現代出版社

農林省御指定
三府四十二縣指定機・補助金付
實用新案 特許 中島式自動製粉機
天下の名機 中島式 製粉有良 利益多大
スノウテックス 小麥粉漂白劑
型錄進呈
中島製粉機釜山販賣所 釜山府富平町三丁目

理化學用白金器具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新發賣御披露
甘味 ニッカ林檎汁

御需要家各位에
甘味ニッカ林檎汁은ニッカ林檎汁의姉妹品으로서나온新家庭飮料입니다。대단시원한甘味가잇고香氣도조코滋養도豐富함으로一層애기네와婦人과老人들의嗜好에適當하야保健上에도至極히好適하옵니다 期於히試飮해보시고ニッカ林檎汁과마찬가지로絶大愛顧를懇願하옵니다
販賣店各位에
今般甘味ニッカ林檎汁의 發賣에當하야 京城의 株式會社辻本商店을 弊社朝鮮特約店으로定하엿사오니 一層愛顧하여주심을바라나이다
東京·大阪 大日本果汁株式會社

燦然! 畫壇의 龍門 學生美術展覽會

來九月中旬을 期하야 開催 傑作을 天下에 廣募

本社主催

젊은조선의 명일을 그려 내일 예술의 전당! 본사가 작년가을 조선의 첫시협으로 전조선학생미술전람회를 개최하여 전사회적성원과 절찬가운데 크다란수확을 거두엇거니와 이뜻잇는사업은 이가을의 구월중순을 기하야 제이회를마지하게되엿다

이땅의 민족은 예로부터 예술에뛰여난 천품을가지고잇서 어미 삼국시대에잇서 고구려(高句麗)의 벽화(壁畵)、신라(新羅) 불상(佛像) 조각、백제(百濟)의 불탑(佛塔)등은 력사적유품으로뿐이아니라 오히려 오늘의기술로도 따를수업는 세계적일품이되여잇거니와 이러한 선조의피를바든 이땅의 어린이와 젊은학도 또한일반적으로 이방면에 재질이 우수할수잇슴은 당연한것이다 이에 미술작품을 통하야 자라는 우리민족문화의 새로운의도와 력량을 질과량을 아울러일당에 모으는기회를 우리학생계ㅣ중등 초등의 전학생에게 주려는것이 본사의 본의로 작년은 비록사업을 시작한 첫회이엇스나 예상이상의 성적을거두어 우리 신문화건설에 크다란초석이 되엿든것이다 금년도 작년과가튼 규정으로 중등학교생부는 동양화과(東洋畵科) 서양화과(西洋畵科)공예과(工藝科)의세과에 공예과에는 조각 공예품 자수 편물을 포함케하고 초등학생부에는 자유화과(自由畵科)와수공과(手工科)의 두과를두어입선작품중 優良한것에는 특선(特選) 우선(優選)의 포상을주기로하는것이며 회기는 구월하순으로아직 시일이 남어잇다고는하나 작품을 제작하기까지는 시일의여유가 만히남엇다고도 할수업슴으로 일반학생들은 지금부터이전람회를통하야 천재발휘의준비가 잇기를 바라는바이다

二百五十中小河川 今年度부터 改修

五十個所港灣修築도 併行 超特大型土木事業

총독부에서는 칠천오백만원의 예산으로 중소하천(中小河川)개수사업을 금년부터 실행하기로 되엇다 이것은 오개년계속사업으로 이백오십삼개의 중소하천을 개수하는것인데 금년도예산이 일천만원이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이와병행하는 대규모의 토목사업이 또다섯가지가잇는데 그내용인즉 작년수재 기타로 현재개수를 요하는어항이 삼백개소나 잇스나 이것을 전부 개수하자면 거대한 예산이 필요하게되여 도저히 실현키어려우므로 위선 시급한 개수를 요하는 어항 오십개를 명년도에 착공할터이며 또 도로개수와 신설교량(橋梁)개수와 신설 일이등도로를포장하야 철도와련락하고 시급개수를 요하는항만(港灣)개수등 대규모의 사업이다

이것은 요전에개최하얏든 치산치수위원회(治山治水委員會)때 자문에 답신한것을 기초로 계획과 방침을 세운것인데 전기 오십개의 어항을비롯하야 항만 도로 교량등을 불원간 토목과에서 실지조사한후 예산을편성할터인데 이것은약삼개년계속사업으로 그예산은 실로방대한수자에달할모양이다

檢束生徒釋放을 學校當局에要求

二、三、四學年生徒가教室占據 春川農校盟休惡化

기보=춘천농업학교(春川農業學校)맹휴사건은 지난이일밤 학교당국으로부터 이、삼 사학년에대하야 등교치말라고 휴교를 선언하는한편 사건의 신속해결을위하야 그중주모되는학생십여명을 검속하야 사실을 취조중 상일까지는 아무일업시 평온한중이더니 사일오후두시경에 삼사학년대부분과 이학년일부분약칠십명이 등교하야 교실로드러와 검거한학생전부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며 학교의명령을불복하고 교실을점령한후 지구전을 계속하다가 오후일곱시에는 모두 운동장으로 나와서 아홉시까지 아우성을치며 소동중이라하며 학교당국과 경찰당국은 될수잇는대로 무사해결키위하야 극력경계중이라한다

拳銃을盜難

【光州支局電話】일일밤 열두시쯤 전남광산군송정면송정리(全南光山郡松汀面松汀里)에서 정미업을하는 교전금태랑(橋田金太郞)(四三)의집에서는 그가호신용으로 가지고잇는 권총한개를두구에게인지 도난을당하얏슴으로 곳 송정리경찰관주재소에 급보하게되엿다 이급보를 밧게된광주경찰서에서는 곳 서원의 비상소집을하야 송정리일대를 중심으로 엄중히경계망을 치고비상경계를 함과동시에 범인의잇는곳을 극비밀리에 찻는중이다 이사건에서 가장기괴한 늣김을 주는점은 도난당한 권총은 다른금품과가티 적은 금고속에너어둔것이엿는데 금품에는 조금도 손을대이지안코 다못권총만 집어갓다는것이다

滿場聽衆을銘感케한 女流文學의精義

盛況이든本社出版部講演會

만인대망의 여류문학강연회는 본사출판부(本社出版部)주최로지난사일(土曜) 오후팔시 정각부터 열렷는바 정각전부터 밀려드는청중은 삼십간 초만원을 이루어 정각까지에는 청중 천여명을돌파하야 근래드문성황속에 개막을하엿다

벽두 본사출판부편집주임 함대훈(咸大勳)씨의 사회가잇슨뒤에이어 정인섭(鄭寅燮)씨의 구미여류문단(歐米女流文壇)이란 문제로 약삼십분동안 자기가보고들은 구주여류문단에 대하야 만흔감명을주엇고 로천명(盧天命)씨의 시랑독은또한 희귀한것이니만치 청중에게 크게감동을 주엇다 그리고 여류시인 모윤숙(毛允淑)씨의 여성과문학이란 제에잇서서는 도한여성만이 여성의 세계를더잘 그릴수잇다하여 여성으로써의 창작태도를논한뒤 쏘프라노박경희(朴景嬉)양의 독창은 재청까지들어가 실로 아름다운노래는 만장청중을 도취식히엇다

최후로 이은상(李殷相)씨의조선여류문학의 역사적발달이란제로 꼿을맷엇는데 이또한조예기픈강연으로 만장은 대갈채속에 십시반 폐회하엿다

(사진은 강연회장)

邊博士送別會

延禧同門會主催

『뻴링스』박사가 이번에 삼십년동안 조선인교육사업에 만흔공로를끼치고 안식년으로 귀국함에대하야 연희동문회경성지회(延禧同門會京城支會)에서 박사를위로하고 기념하는취지에서오는륙일토요일오후여섯시 한강월편 태서관지점(太西館支店)에서『송별의밤』을 열터이라는데 회우의다수참가를바란다하며 회비는 이원이라한다

法德溫泉全燒

【永登浦】사일오후두시 이십분 시내 본대방정(本大方町)일백사십구번지 법덕온천(法德溫泉)에 불이 이러나 삼시간전소하엿고 영등포 (永登浦) 로량진(鷺梁津)두소방조의 활동으로 린가만은 무사하엿다는데 손해는삼백오십원 가량이라하며 원인은 법덕온천 주인점부선상(占府善上)의여섯재아들선능(善能)(六)이 기아궁에서 불작란을하다가 부억에 쌋든나무가 연소된것이라한다

樂園町兩處에서 少女三名이轢傷

교통사고두가지=사일오후여섯시십분경에 시내락원정(樂園町) 금정이정목 명치(明治)『택시』 이백팔번지압 큰길에 시내황운전수 송계환(宋桂煥)(三)이가 운전하다 정거해둔 경(京)구천이십칠호 자동차바휘미테서 락원정일백칠십팔번지 정한룡(丁漢用)의장녀 (榮花)(三)와 그집고용녀 김경월(金敬月)(○)이가 놀고잇섯는데 운전수는 이것을 모르고 자동차를 발차하려다가 그두아이를 스처서 각각다리에 치료사일간의 찰과상(擦過傷)을 입혓다고한다

또 사일오후다섯시쯤해서 시내락원정륙십이번지압 큰길에서 시내인사정(仁寺町) 칠십일번지 평안 (平安)『택시』운전수 김원식 (金源植)(三)이가 운전하든 경(京)구천일백륙십삼호 자동차압흘 시내인사정일백이십륙번지 유동원(劉同源)의장녀 옥녀(玉女)(一)가가로건너가려다가 치여서 다리에 전치십일간의상처를입고 방금부근 박창훈(朴昌薰)병원에입원치료중이다

怪中女는誘拐魔?

西小門少女失踪事件嫌疑로 西大門署서檢擧코猛取調

사일오후여덟시경에 시내서대문서 사법계형사대가 그관내서소문정(西小門町)중국사람거리에서 산동성(山東省)출생의 량씨(梁氏)(四)라는 중국녀자를 그의아들 리모(李某)(二)라는 소년과함께 붓잡아노코 방금소녀유괴와 인신매매의 협의로 엄중한문조를 하고잇는 중인데아직사건내용이 뚜렷하게 판명되지는 안헛스나 얼마전에 전기서소문정에서 조선인소녀한명이 의문의 실종을한이후 서대문서에서는 그소녀실종의리면에는큰 유괴마가잠재해잇지나안흔가하고 이래 엄중내사하던중 드듸여전기량씨라는 정체모를 중국녀자를붓들게되고 그녀자의 배후에는 조선인중국인합작의 농촌부녀를 대상으로 삼는 대규모의 유괴기관이잠재해잇는흔적이잇서 돌연 전기와가튼 활동을보게된것인데 아직까지는 전기중국녀자는 군산(群山)에서 올라왓다는것만말하고함구불언하는터로그 취조결과가자못주목을이끌고잇다

杏堂町에小火

삼일오후일곱시십분 부내행당정(杏堂町)삼백일번지 김연수의 집부엌에서 불이나서 연집까지 태우고 동상십오분에 진화되엿다 원인은 어른이업는틈에 전기 김의맛딸금룡(今龍)(○)이가 밥을짓다가 난것이며 손해는이십원가량이다

朝鮮體育會 新任理事會

常務幹事를選定

朝鮮體育會新任理事會는 豫定과가티 四日午後五時부터 同會館에서 副會長兪億兼氏司會로열고 다음과가튼 事項을決議한後 同午後六時에 閉會하엿다

一、常務理事로 金圭冕、李允宰(競技部) 金龍九(財務部)朴榮鎭(庶務部)四氏를選定

一、宣傳部 常務幹事 金東轍 四新聞社

一、庶務部幹事 韓澤善 朴鍾勳 全有亮

一、競技部幹事 李允宰(籃球)、金永述(籠球)、金永述(排球)、李正末(蹴球)、黃明源(庭球)、李正相(陸上)、金龍九(氷上)、成義慶(拳鬪)、高映河(씨름)、徐相天(力道)、姜樂遠(劍道)、韓奎照(柔道)、李鎭옥(럭비ㅣ)、朴錫德(卓球)

一、顧問選定의件은 保留하야次回理事會에提出할事

一、會報發行의件은 研究하야次回理事會에提案할事

一、各種競技는 씨ㅣ즌에 따라 開催하기로함

今日의運動

▲籠球=延專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七回全朝鮮中等學校籠球大會 第二日…午後二時 新村町延專『코ㅣ트』(觀覽無料)

▲庭球=朝鮮學生軟式庭球聯盟主催 第三回專門學校對抗庭球大會第一日…午前十時 京城運動場、藥專兩『코ㅣ트』使用(觀覽無料) ◇京城公立中等學校庭球聯盟主催 第十七回春季리ㅣ그戰第一日…午後四時 清雲町第二高普『코ㅣ트』(觀覽無料)

▲野球=京城實業野球聯盟戰第八日…府廳對殖銀第一回戰(午後一時) 鐵道對遞信第一回戰(第一次戰終了三十分後) 京城球場(觀覽料=넷트後面四十錢·普通廿五錢·學生十五錢)

▲陸上=全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 第四回全朝鮮大學·高專陸上競技大會第一日…午後一時 京城運動場(觀覽無料)

▲排球=朝鮮排球協會主催 早大排球團招聘戰第一日…對遞信第一回戰 午後一時 遞聽前遞信『코ㅣ트』(觀覽料=一日券 三十錢·三日通用券五十錢)

美展入場者 二萬名突破

例年보다觀覽者激增

제십륙회 조선미술전람회 (朝鮮美展)는 금오일오후다섯시로써 막을닷치는데 작사일오후다섯시 현재관람인원은 이만오천사십륙인으로 이중에유료관람인이 이만어천팔백일인 무료관람인이 이천삼백사십오인인데 이것을 작년그날 즉십오회 전람회때종막이틀전날의 관람인수 이만일백륙십사인에비하면 사천팔백팔십이인의 증가이오 이것을또다시 십오회전람회의 총관람인수이만삼천이백이십오인에 비하드래도 또한 일천팔백이십일인의 증가인즉 최종일인 오일오후다섯시까지 가면 작년보다 약칠천명의 증가를 볼모양이라고 회부국에서는 말한다

大阪에서 나그네上演

本報讀者는割引

【大阪】대판시동구옥조일지출통(東區玉造日之出通)에잇는 영화상설관옥조좌(玉造座)에서는오는사일부터 십륙일까지 일주일간에 조선성봉영화원 (朝鮮聖峰映畵園)과 신흥키네마와의 합작품인 조선어전발성영화 (朝鮮語全發聲映畵)인 나그네(旅路)를 절상영키로 되엿다는바 나그네는 영화계의권위 리규환 (李圭煥)씨의 원작 각색으로 일본영화계의 명감독인 영목씨의 감독하에 조선영화계에 최대 인기를 집중한 유명한녀배우문예봉(文藝峰)양의 주연으로 근래에드문걸작이라고하며 대판에서 봉절상영함은 금번옥조좌가 처음이라한다 금번『나그네』상영중에는 특히 조선일보독자우대권 지참하신분에게는 일등사십전을 삼십전으로 이등이십전을 십오전으로 할인우대하기로 하엿다고한다

거리의暴漢·自動車

無免許運轉닷드선 行人을激突折脚

"之字"거름으로大路를疾走中 第二高女教諭奇禍

사일오후 부내고시정(古市町)에서 자동차면허장도업는 청년이 닷드선을 운전하고 비틀거름을치며 질주하다가 행인과정면충돌하야 두다리를 한거번에 부질르게한 거리를비린내나게한 참사가 잇섯다

사일오후 다섯시 사실은 부내고시정 (古市町) 이십이번지압 커ㅣ부에서 고시정십칠번지에사는 제이고등녀학교교유 구구천대길(溝口千代吉)(三五)씨가 지나가려는 압길에 부내 삼판통(三坂通) 일백이번지 유판(有坂)방에잇는 토비수 (土肥修) (三)가 닷드선 경(京)일천삼백사십오호에 면허잇는 운전수 류인화(柳寅和)(三七)는 뒤에 태운채 삼판통을향하야 운전하고 오다가 바로아페가는 구구(溝口)를 피하려는것이 질못되여 정면충돌을 하야닷드산아페잇는"밤바ㅣ"로 구구(溝口)씨의 두다리에 한복부디처 부질르게되여 현장에피를 흘리고 혼도하게되엿다 즉시로 적십자병원에 운반하야 응급수당을 하엿스나 이삼주일로는도저히 완치할수업는 중상이라하며 가해자인 면허장업는 토비(土肥)와류인화는 고용산서에인치한후 엄중취조중이라한다

臟品을變造 證據를煙滅

洋服窃盜의怪手段

사일오후네시쯤 부내 본정경찰서에서는 전과삼범의 절도전문범을 체포하여왓는데 그는원적을 전북익산군(全北益山郡)에 두고 부내 창신정(昌信町)륙백오십일번에사는 리종우(李鍾宇)(三)로 그는지난 사월십구일에 방산정(芳山町)팔십번지 전중량일랑(田中良一郞)방에 드러가만도는 시가 오십원 가는것을 절취한것을 비롯하야 서대문(西大門) 동사헌정(東四軒町)방면으로 도라다니며 십여건 시가삼백여원어치물건을절취한 대담한자이라는데 그는증거를 연멸하려고 절취한물건을모다 변형케하야 그수단이 교묘함에는 취조하는경관들도애를쓰고잇다한다

家庭婦人工場見學團募集

第一隊 鐵道局工場、專賣局工場 定員二百名 會費每人五錢

▲集合 午前九時龍山驛前 ▲解散 正午義州通專賣局工場前

第二隊 鍾淵紡績工場、기린麥酒工場 定員二百名 會費每人二十六錢

▲集合 午前八時半 京城驛前 ▲解散 午後○時卄五分 龍山驛前

◎申請期限=六月六日午後四時까지 會費添付本社事業部로申請할일 會員은婦人에限함

時日 六月七日

主催 朝鮮日報社

외交員掛時計日賦販賣係 募集 要帶者로二十五歲以上三十五歲까지 固定給、步合支給、市內確實한保證人二名을要함、希望者는履歷書携帶午後一時부터三時까지 本店에來談 村木時計店

募集 月收百五十圓以上 手腕家 京城和泉町 …本品…

朝報案內

時計廉賣 十八金代用側各種 クローム側各種 瑞西特製時計 掛鐘置時計各種 夜光時計 正十八金時計各種 流線型各種 ウオルサムエルヂン 大賣出 新義州驛前 合名會社 三一洋行

精神病科 脳髓病 脳脊髓 醫學博士近藤樊太郎 釜山腦病院 부산뇌병원 入院室完備 釜山富平町 電話長 二八四

돈벌기大王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八九番) 리ㅣ트式穀物膨脹機 五合의米가八升이되는菓子 菓製法傳授

男女淋疾 淋五茸蔘錠

콜럼비아大家盤 八十錢의 流行歌豪華盤 리갈레코ㅣ드 REGAL 安一파順愛 朴允善吹込

皮膚病良藥 피부병양약 데ㅡ무水 テーム水는 ◉殺菌作用으로 皮膚病의菌虫을殺滅하고痛症과가려운症을업시하고 ◉消毒作用으로 患部의毒素를分解消滅하고 ◉收斂作用으로 患部를漸漸적게하야낫게한다 ◉滑澤作用으로 皮膚를圓滑하고潤澤하게한다 ●말은흠 ●음부습진 ●무좀 ●옴 ●태독●두스럼 ●진물은데●가려운데●부름●힌어루러기 ●버짐 ●癩風 ●疥癬 ●파풍 ●여드름 ●죽은깨 ●농가진●痔疾肛門진물은데●옷올은데●藥진물나는데●벌록●모기、갈닥귀、빈대毒虫의刺傷皮、脂腺에 使用하고 쓰리지안코 압푸지안코 눈에 안띄고냄새업시用法이簡單하며 速히낫소 テーム水藥價(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送料內地六地 全國到處藥店에서販賣함、萬一品切時는 代金을添付하야左記發賣元으로注文하시라、即時送呈함 模倣品이만히잇사오니 テーム水라指名하시오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六○一○○番 東京藥院 大阪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三五五 振替大阪五○八一八番 東京藥院

京城嘉會町十一ノ六二號 (桂洞中央高普正門左側) 산파 產婆 韓晨光 電話光③三一六三番 入院順產하실產室도有함 赤貧者는無料助產함

急告 只今大投賣中 市價三分의一 正確時間 新型錄無代進呈 安くていつも正しい 安心して買へる時計 瑞西製最新流行型揃ひ 十個年絕對保證 某外國商館破產處分品引受整理

◇註文하실때에는 (1)代金引換은 반듯이內金으로三割以上을拂込할것 (2)送金은…小爲替나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으로 (3)送料는代引註文者에限하야四十錢식負擔할것 (4)한번에六個以上註文時는五分割引、一打以上은一割引함但五圓以上의品에限

クローム側腕卷 (11型)イ七石(鍍金)只の二・八○○ ロ七石(金側)〃三・五○○ ハ十五石(金側)〃五・八○○ (10型)イ七石(金側)只の四・五○○ ロ七石(金側)〃六・五○○ ハ十五石(金側)〃七・八○○ (9型)イ七石(金側)只の五・八○○ ロ七石(金側)〃七・○○○ ハ七石(金側)〃八・五○○ ニ十五石(金側)〃一○・○○○ (8型)イ七石(金側)只の七・○○○ ロ七石(金側)〃八・二○○ ハ十五石(金側)〃九・八○○ ニ十五石(金側)〃一四・○○○ クローム側懷中金メタル付 (16型)イ七石(金側)只の二・六○○ ロ七石(金側)〃三・二○○ ハ七石(金側)〃四・三○○ ニ十石(金側)〃五・五○○ ホ十石(金側)〃六・八○○ ヘ十五石(金側)〃八・八○○ ト十五石(金側)〃一○・○○○ クロムウオルサム懷中 (16型)イ七石(金側)〃一一・五○○ ロ七石(金側)〃一六・五○○ ハ七石(金側)〃一七・五○○ ニ七石(金側)〃一九・八○○ ホ十五石(金側)〃二一・八○○ ヘ十五石(金側)〃三八・○○○ 十八金HK側腕卷八型 イ七石(金側)只の八・六○○ ロ十五石(金側)〃一二・○○○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東京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五日より四日間 八日マデ 階下席十錢均一 水島道太郞、大河內傳次郞主演 怪電波殺人光線 第一編全八卷上映 日活超特作大連續活劇 無敵ボスーツ王 第五、六、七、八編提供 河部五郞、杉山昌三九、男州下木、夏目藥主演 夕立勘五郞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一 第二回 三、三 第三回 七、七 永樂町 本三○二四 中央館

六月五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絕對成功의豪華版躍進週間 (一回十一時一回二時二十分、映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 유나이데드社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에드와ㅣ드·스사란드氏監督 "天國爆擊隊" 콜럼비아社特作全發聲日本版 하몽드·슈멘드氏監督 로스·레다ㅣ만氏原作 "깽그戰線" 松竹蒲田大作文藝映畵全發聲 清水宏氏監督 "變心臟" 主演 川崎弘子、高杉早苗、桑野道子、上原謙、近衛敏子共演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第一劇場

5月31日ヨリ 上映時間 京日世界ニュース 11.00 2.55 7.00 ユニヴァサル日本版 結婚劇場 11.15 3.10 7.15 朝日世界ニュース No.174.No.17 12.26 4.21 8.26 アリイボール主演 樂聖ベートーヴエン 12.45 4.40 8.45 午前11時迄早朝御優待 明治座

六月三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三回 正午十二時ㅡ六時까지繼映 三回七時半부터!!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元니버살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三大超傑作名畵大公開) 主演…찰쓰빅포ㅣ드氏 監督…죠ㅣ지·말포ㅣ드氏 猛獸劇 쟈바의東 全八卷 ◇와너내쇼날超特作全發聲日本版 에리사베드양크孃 主演…첼쓰·카크니氏 監督…하와ㅣ드·혹쓰氏 空中大活劇 無限의青空 全八卷 ◇마키노超特作全發聲版!! 時代劇 國定忠治信州子守唄 監督…久保爲義氏 主演…光岡龍三郞氏 水原洋一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番 新富座

待望의名篇六月四日부터大封切 파社創立二十五週年記念超大作 日本版 巨匠세실B 대밀氏空前의大作 平原兒 케리ㅣ쿠ㅣ파氏 진아ㅣ사ㅣ孃 主演 大平原에지는義人의魂!全篇熱火의激情과義憤으로交雜된紅熱의一篇!! P·C·L超特作全發聲野心篇 小林勝原案、脚色 伏水修監督作品! 風流演歌隊 藤原釜足 岸井明 主演 小杉義男 市川朝太郞 竹久千惠子 神田千鶴子 助演 明治流行歌의온파레ㅣ드로音樂映畵의新境地를開拓한P·C·L의一大野心作 其他發聲漫畵全卷 黃金町 電光三一九五 優美館

本社主催 広告講座 ⑦

小賣店廣告立案
商略은賣上增進手段

中山太陽堂廣告部長 室田庫造

第三講座 ⑤

이는 또 永久的商略인데 자미잇다고생각한것은 食料品店에서一圓어치를 사면 一哩의汽車乘車補助券을 주고잇다 食料品이므로 每日 만히 使用한다 一圓에 對하야 一哩의 乘車補助券이므로 一圓、二圓사가는中에 그一哩가 싸히고싸히어 幾十哩、幾百哩로된다。佛蘭西사람은 여름은 반드시 旅行하는 習慣이잇는바 그여름의 旅行을 商略에 結聯시킨 方法이다。이는 손님을 永久的으로 捕捉하는 조흔 方法이라고 늣기엇다。

또하나는 獨逸의 例인데 대단히 조타고 생각한것은 所謂『떼몬스추레이숀』日本말로 말하면 實物說明宣傳販賣라할것인데 이는 商店아페 資寮를 노코 今日은 이物品을 幾打판다는 豫定計劃을 세우고 그를 資器우에 내노는다 그리고 그商店의 主人이나 或은 店員이 나와서 그商店의 說明、使用方法等을 說明하는것이다。여러가지 商品을 이러한 方法으로 宣傳하고잇서 獨逸小賣商店의 廣告로서는 獨自의것이라고 생각하얏다 마침『올림픽』이잇기 前年으로『올림픽』宣傳에도『떼몬스추레이숀』의 移動廣告의 方法으로 盛히 使用하고 잇섯다 그는『올림픽』의 會場을 模型으로 만드러가지고 그를자티하야 自動車에 실어가지고 自由로 移動하다한것으로 곳곳마다 머무러『올림픽』에는 꾹오라는 宣傳을하고잇섯다또하나 이도 色다른 廣告로『스탄즈』廣告라는것이잇다『스탄즈』라는것은 日本말로 寄拔이라고 飜譯되고잇다 압서말한거와도『스탄즈』의 一이다 流行의 本元은 巴里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流行도 다만 雜誌上으로나 或은 新聞上으로만 宣傳하고잇지는안는다 例하면 오는가을에 어떠한것을 流行시킬가하는 境遇에 婦人服專門家가 모여서 여러가지로 講論하야 한型을 만든다 그型은 昨年의 型보다 퍽다른것으로 만드러 그를 初秋八月頃부터『마네킹』에게 이피어『카페』라든가 劇場가튼데 出入하게한다

相當히 色다른 衣服을 입고잇스므로 大體 어뎃 令孃일가하고보고잇는중 그것이 流行型의 宣傳이엇다 이러한것도 佛蘭西에서 복『스탄즈』廣告의 一이다

또하나『스탄즈』廣告의 자미잇는 例가잇다 그는 어떠帽子店에서『포스터ー』를 懸賞으로 募集하야 展覽會를 開催한일이잇다 끄때 一等當選의『포스터ー』에 누가『인크』를 뿌려서 쓸지못하게되어 大問題를 이르키엇다 新聞社에서는 이『포스터ー』에 一萬法이라는 賞金을 걸엇스므로『스ー스베트』가 잇는터로 盛히 報導하얏스므로 一時는 大騷動이엇스나 實際로 그裸畫을보면 그를 一等當選으로한것이나『인크』를 뿌린것이나 모두 그商店이한것으로 人氣를 끄을기爲하야서의 한方法이엇다 이는 너무 甚한 작난이지만『페아풀레이』와 조히 한거사이가『스탄즈』의 자미잇는것이다

또하나는『코티ー』라는 香水商의 繁榮時代에 巴里의『엣페루』塔에 廣告한일이잇다 내가 實際 본것은아니나 女子에게『엘레베타』나 車를 使用치안코『엣페루』塔에 올라가는 競走를 시킨일이잇다그런데『엣페루』塔에는 큰『코티ー』라는 일홈이 나붓고 거기를 女子들이 올나감으로모다 처다보아 대단히 잘廣告가되엇다는 말을 들은일이잇다

—(續)—

產業

大製糸家除外코 關係業者모다反對
[大邱繭自由市場廢止의波紋]

【大邱】大邱繭自由市場은 數十年의 傳統的歷史의 幕을 閉鎖하얏다 此에對하야 大製絲家、繭仲買業者、小製絲家、養蠶家의 意見은 如左하다

統制上閉鎖는當然
大製絲家 談

大邱의 繭自由市場이 一定期에 達城郡共同販賣市場에編入케된것은 年來의 總督府當局의旣定方針에 順應된것이며 繭販賣統制를 絶叫하고잇는 今日에當然한 일이라고 아니할수업다

此에對한 別意見은 업스나朝鮮의蠶絲業界도 統制되게된것은 實로 慶賀함을마지안는다

原料不足으로 生業權을威脅
群小製絲家 談

自由販賣市場의 廢止에 依하야 當局은 小製絲家에게 何等의支障이 업도록하겟다고 李產業部長은 言明하고잇스나 慶北은繭이 不足하다

小製絲家는 仲買業者와 特殊한 關連이잇서 所謂『特殊事情』下에 잇슴으로 數十年의 販賣市場을 一朝一夕에 變更하는것은 吾等 小製絲業者의 生業權을 剝奪하는 結果를 낼것이다 그러므로 當局의 再認識을 要求하는바이다

正當한價格의 繭賣買를希望
養蠶家 談

當局이 自由販賣市場을 廢止한다고하면 束手無策이라하겟스나 生絲生產工賣가 日本內地와 比較하면 만흔差이 잇는것은如何한 理由인지? 三製絲會社가 配當된 奬勵金을 郡을通하야共同販賣終了後 養蠶家에게 交付하는것은 如何한理由인가? 그리고廢止後도 三製絲는 養蠶家에게 奬勵金이란것을 낼것인가 甚히 疑問이다 我等은 單只正當한價格으로써 繭의賣買를 行하기만 바랄뿐이다

他職業을주면滿足
繭仲買業者 談

繭仲買業者로서 自由販賣市場存續廢止等을 말할수업스나 繭의 自由販賣市場廢止로 因하야 數十年間 相當히 蠶業界에 貢獻하고잇는 仲買業者의 生業權이 剝奪되지안토록 當局이考慮하야주면 何等當局의 旣定方針에對하야 云云하지안흘것이다

自由市場廢止
販賣統制가主眼
一部業者에의打擊은不得已
慶北道產業部長聲明

【大邱】京城、平壤、大邱等의三個所는 繭共同販賣의 區域外에서 自由取引을 實施하야오든바 其後곳平壤은 共同販賣의 區域에編入하고 京城은 昨十一年春蠶期부터 自由取引을 閉鎖하야 全朝鮮에서 大邱만 自由市場으로서 내려오든바 旣報한바와如히 全朝鮮唯一의 大邱自由市場 道告示 達城郡의 共同販賣所는 道廢止하기로 決定되어 二日附 從來 郡廳構內에 設置하야오든바 大邱府에 編入된關係로 達城郡共同販賣所를 大邱府八雲町四一의四番地 朝鮮工藝會社에設置하기로 決定하고 共同販賣時期는 六月五日부터 二十日까지 十六日間이라고 廢止에關하야發布하는同時에 慶北道李產業部長은 二日午後二時 蠶業取締所에 業者를 召集하고『旣設工場의原料充當』『產繭處置統制』『新設工場의促進』等의 特殊 事情理由下에서 自由市場을 廢止한다고 發表하얏는데 李產業部長의 自由市場廢止의 聲明은如左하다

聲明內容

蠶業의 堅實한 發達은 繭蠶種生絲의 生產過程에잇서 連絡協調에 俟함은 當然한바인바 其中에도 實로 緊要한 事情이잇는關係로서 總督府에 잇서서는 昭和二年以來 所謂 繭의特賣制를 樹立하야 今日에 及하게된것이다 當時 平壤 京城 大邱의 三個所는 繭共同販賣의 區域外에서 自由取引을 實施하야오든바 其後 곳 平壤은 共同販賣의 區域에 編入되엇스며京城은 昨十一年春蠶繭의 取引부터 自由取引을 閉鎖하야 全朝鮮唯一의 自由取引場으로서 大邱가 남어잇섯다 그런데 繭共同販賣와 自由取引等의 間에는 出荷誘致 其他에 對한 種種의 弊害가 잇서서 그대로 放置함에 잇서서는 蠶業奬勵에 莫大한暗影을 投하게될것은 恒常憂慮에 不堪하얏다

日本內地에잇서서는 從來 繭取引의 公正을 缺하야 眞價相當의 取引을 行치안음이 甚多하야 斯業發達을 爲하야 遺憾으로 여기어오든바 政府는蠶絲業更生에關한 諸方策中 重要政策으로서 產繭處理統制法을 立案하야 昭和十年第六十四議會에 提案하얏스나 繭의 取引者인製絲業者의 反對로 因하야 審議未完에 終하얏다 그러나 本案은 非常時蠶絲業經營刷新을 爲하야서는 一日이라도 빨리하지안호면 안될事情인關係로 再此昨十一年特別議會에 提案되어此는 協贊을 得하야 同年五月公布하게되엇다 唯獨 產繭處理에 꾿치지안코 蠶絲更生의 方策으로서 制定한 蠶絲業組合法、原蠶種管理法、製絲業法、絲價安定施設法의 諸法律은 全部가 蠶絲業의 統制에 不過한것이다 生絲가 對外貿易品인以上 蠶絲業者들 一丸으로한 統制는 畢竟 蠶絲非常時의 對策이라고 信하는바이다 總督府當局에잇서서도 此情勢에 應하야 各業者의 連絡協調를 强化하야 一層 斯業의健全한 發達을 圖하지아니할수업는實情에 鑑하야 繭共同販賣制確立의 趣旨를 徹底케함으로써 繭取引의 安全圓滑을 期하기爲하야 販賣制度의 一元化의 實現에 關하야 通牒한바이다。

도리켜 本道內部의 情況을 보면 郡部의 都邑에서도 各各 繭의 生產地로서 集散地인 關係上 製絲工場誘致를 希望하고잇는것은 蠶業奬勵上 歡喜할바이다 此實現을 期함에는 旣設工場에잇서 現有釜數의 原料를 充實케한 然後에 工場의 新設에 及할事情인故로 新設工場의 强化에 依할것을 痛感하고잇는바이다。

또 養蠶은 農家更生을 爲하야 現金收入의 主要한것인故로 繭販賣方法을 明朗化함은 農村振興上으로보아 緊切한 事라고 認하는바이다。

以上의 主旨에依하야 今年春蠶期부터 大邱府를 達城郡農會의 繭共同販賣의 區域에 編入하야 繭의取引을 行케하고 從來特賣를 受치아니한 發許製絲業者에게는 別途의方法을 講究하야 原料繭을 配給하기로하얏다 元來로 一部의業者에게는 이로말미아마 事業上多少의 影響이잇슬런지는 알수업스나 此는 本道蠶業奬勵上 有効適切한 事項일뿐만아니라 朝鮮蠶絲業의 統制上 緊要한 手段인것을 諒解하야주기를 希望하는바이다 또 一部養蠶者中에는 自由取引에依하야 從來相當히 高價로 取引하고잇슨者도 잇섯다고하나 이는 少數에 不過하얏스므로 養蠶者全部의 利益을 增進하고저한點을 생각하야 統制配給化가 必要한所以도 此點에잇는것을 諒解하야주기를바란다 더욱 繭의 品質에 相當한取引을 行하기를 熱望하는바이다 繭檢定設備等을 充分히 利用하기를바라며 그리고 共同販賣의 運用에 關하야서도 奬勵에잇서 改善하도록 努力할터이다

忠北道의棉作
豪雨로被害不少
各郡에肥培管理通告

【淸州】今年의 棉花播種은 屢降雨가 比較的長期에 亘한까닭으로 發芽狀態가 一齊치못할뿐아니라 去十九日 豪雨로因하야 忠北道內各地는 그被害가相當한模樣으로 發芽期에잇는 棉種子의 露出 幼苗의倒伏等의被害가 적지안홈에鑑하야 忠北道當局에서는 此等의 棉圃의 管理를 徹底케하고저 肥培管理의 萬全을 期도록 道內各郡에 지난二十七日通告하얏다한다

產◇業◇短◇信

▲淸津 雄基에잇는 東富商會에서는 最新式鰮乾燥機를 購入하야 同商會松坪洞工場에 設備하기로되엇다는바 이는 朝鮮內는勿論 全國에서 처음보는最新式乾燥機로 鰮乾燥와 鰮油生產이 同時에되는것으로 이機械는 精巧하고 製造方法이 新新한데 그成績이 크게 期待되다한다

▲榮州 지난 五月三十日은 金融組合創始三十週年에 該當하므로 榮州金融組合에서는 當日 尋常小學校庭에서 盛大한 祝賀式과模範職員及模範組合員의表彰式、賞品傳達式을擧行하얏다 한다

▲洗浦 江原道營 洗浦種羊場은 洗浦農場株式會社經營의牧場이든바 昭和十年度에 그를買收하야 道種羊場及 農事試驗場을 設하얏는데 同場에서 지난四月十五日부터 六月十五日까지 一個月間緬羊講習會가잇다

▲江華 江華金融組合에서는 三十週年記念日인 三十日午前十時同組合會議室에서 三十餘地方有志를 招待하고 模範組合員表彰式을 擧式하얏다

江華產業組合에서는 六月一日 同組合 會議室에서 評議員會를 開催하고 仕上機一切一이 에必要한 建物을 一萬餘圓의經費를 投하야 新設키로 決議를 하얏스며 一方 建築中에잇던 染色工場도 完成을 보게되엇슴으로 이도一般에게 公開營業토록 討議하얏다

日用商品市況

京城市勢는 左表와가티 閑散을 繼續하고잇다。近衛內閣의 成立으로 今後의 市況은 如何히 展開될는지? 關係商人側에서도 新內閣에 對한 期待가 적지안흔모양이며 元來 鐵材의 騰貴이 잇는만큼 先高를 豫想하는 觀測이 有力하다

▲鐵物不變 昨秋以來 今年四月에 亘하야 鐵材騰貴에 伴한 投機旺盛과 所持側의 賣惜等으로 騰勢를 示하든바 그後 物價抑制策等에 依하야 四日도

◆亞鉛引平板 鋼三尺長六尺 各一枚에

▲二番一般品	
赤門	一·八〇
羽矢	一·八〇
호구로구	一·八〇
地球	一·八〇

▲厚板	
二十九番	一·三三
二十七番	[illegible]
二十五番	[illegible]
二十二番	[illegible]
二十番	[illegible]

◆亞鉛引小浪板 各一枚에

	六尺	七尺	八尺
▲三十一番	〇·九〇	[illegible]	[illegible]
▲二十九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亞鉛引大浪板 各一枚에

	六尺	七尺	八尺
▲三十一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十九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丸釘 百斤入一樽에

四分三	一七·〇〇
一吋	一六·〇〇
一吋四分一	一五·五〇
一吋半	一五·二〇
一吋四分三	[illegible]
二吋	[illegible]
二吋半	[illegible]
三吋	[illegible]
三吋半	[illegible]
四吋	[illegible]
四吋半	[illegible]
五吋	[illegible]
六吋	[illegible]
七吋	[illegible]

◆亞鉛引鐵線 (十四斤一丸에)

六番	三·〇〇
四耗	[illegible]
八番	[illegible]
三、二耗	[illegible]
十番	[illegible]
十一番	[illegible]
十二番	[illegible]
十四番	[illegible]
十五番	[illegible]
十六番	[illegible]
十七番	[illegible]
十八番	[illegible]
十九番	[illegible]
二十番	[illegible]
廿一番	五·〇〇
廿二番	[illegible]
廿三番	[illegible]
廿四番	[illegible]
廿五番	[illegible]
廿六番	[illegible]
廿八番	[illegible]
廿九番	[illegible]

◆鐵線 十貫에

六番	九·〇〇
八番	[illegible]
十番	[illegible]
十一番	[illegible]
十二番	[illegible]
十四番	[illegible]
十六番	[illegible]
十八番	[illegible]
二十番	[illegible]

◆洋鐵板 一函에 十二枚入 幅二十吋長二十八吋 [illegible]　賣枚 [illegible]

◆丸鐵 十貫에

一分五厘	一〇·三〇
二分	[illegible]
二分五厘	[illegible]
三分	[illegible]
四分	[illegible]

五分	[illegible]
六分	[illegible]
七分	[illegible]
八分	[illegible]
一寸	[illegible]
一寸二分	[illegible]
一寸四分	[illegible]
一寸六分	[illegible]
一寸八分	[illegible]
二寸	[illegible]

◆線條

	一卷에
大卷(約三百間)	三·〇〇
小卷(約百五十間)	[illegible]

◆白銅板 百斤에

六寸幅(東京製)	[illegible]
二十番	[illegible]
廿二番	[illegible]
廿四番	[illegible]
廿六番	[illegible]
廿八番	[illegible]
三十番	[illegible]

◆雜鑛地金 百斤에

丁錫	[illegible]
折錫	[illegible]
니켈丸 百磅에	[illegible]
純銅	[illegible]
砲金潰	—
角砲金 丸天票	[illegible]
古銅線	—
鍍地銅	[illegible]
生子鉛	[illegible]
棹鉛	[illegible]
丁亞鉛	[illegible]

◆鐵板 三尺六尺十貫에

五厘厚	[illegible]
七厘五厚	[illegible]
一分厚	[illegible]
一分五厘厚	[illegible]
三枚物	[illegible]
四枚物	[illegible]
五枚物	[illegible]
六枚物	[illegible]
七枚物	[illegible]
八枚物	[illegible]
九枚物	[illegible]
十枚物(東)	[illegible]
十一枚物	—
十三枚(東)	[illegible]

四尺八尺十貫에

五厘厚	[illegible]
七厘五厚	[illegible]
一分厚	[illegible]
一分五厘厚	[illegible]
二分厚	[illegible]

五尺十尺十貫에

五厘厚	[illegible]
七厘五厚	[illegible]
一分厚	[illegible]

◆眞鍮板 銅板 幅尺二寸長四尺 一枚에

	眞鍮板	銅板
二온스	[illegible]	[illegible]
一斤	[illegible]	[illegible]
一斤半	[illegible]	[illegible]
二斤	[illegible]	[illegible]
二斤半	[illegible]	[illegible]
三斤	[illegible]	[illegible]
三斤半	[illegible]	[illegible]
四斤	[illegible]	[illegible]
四斤半	[illegible]	[illegible]
五斤	[illegible]	[illegible]
五斤半	[illegible]	[illegible]
六斤	[illegible]	[illegible]
七斤	[illegible]	[illegible]
八斤	[illegible]	[illegible]
十斤	[illegible]	[illegible]
十五斤	[illegible]	[illegible]
二十斤	[illegible]	[illegible]

◆八角鋼 十貫에

六分	[illegible]
八分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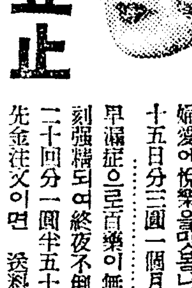
◆삽 一打에

特等기린	[illegible]
一等象	[illegible]
二等旭	[illegible]
콩크리ー트用	[illegible]

福田又商店 京城支店調

特許 商標 朝鮮特許代理局 京城光化門通二一〇番地 電話光二四七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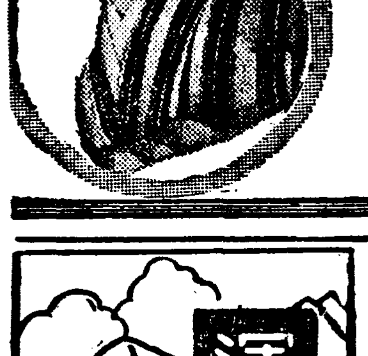
性器強大靈藥 中國名藥 淸導補腎丸
中國名藥本丸은男子生殖器短小早漏等에特効하야百發百中입니다。아모리先天的短小한분도服至數週에强大되여圓滿한夫婦愛에悅樂을늣김니다。
十五日分三圓 一個月分五圓五十錢



早漏立止
早漏症으로百藥이無効한분도此藥을布印刻强精되여終夜不倒되는中國秘方입니다
二十回分一圓半 五十回分三圓
先金注文이면 送料自擔說明書無代進呈
滿洲安東縣三番通五丁目一 振替京城二七四五五番 日滿商事社藥品貿易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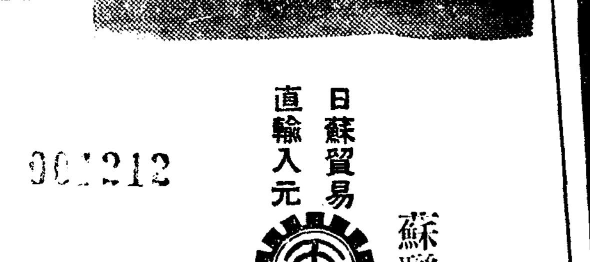
外科 X光線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醫學博士 鄭求忠
電話光化門六八五番

安川コロダイ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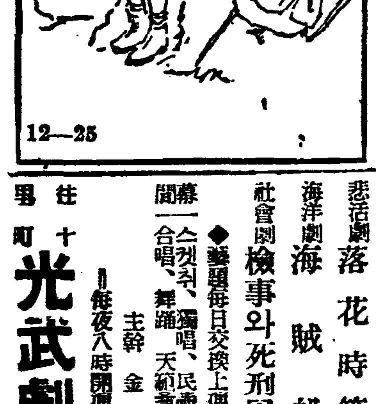
胃痛腹痛에 卓効잇는
適應症 胃痛、腹痛、食傷、胃痙攣 下痢、消毒、酒醉、船醉、
定價 二十錢、卅錢、五十錢 一圓、二圓、五圓
發賣元 本舖 安川晃榮堂 電話銀座三六一〇一番 東京市麴町區永田町二丁目

ユニオン裁縫機 유니온
特長
ソヴエイト 國營
一、前進後退自由自在
二、價格世界壓倒的廉價
三、品質何國ミシン을莫論하고 追從不許
世界裁縫界大攪乱
萬國標準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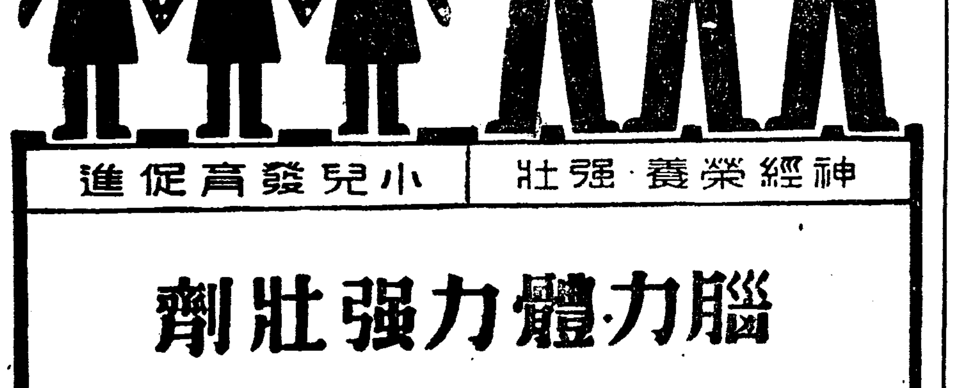


蘇聯邦國營『ユニオン裁縫機』
日蘇貿易直輸入元 三福合名會社
京城鍾路四街里 電話光一六四八 振替京城一五〇八一
取引銀行 第一銀行 漢城銀行
分店規定並型錄卽時進呈
月賦販売를開始
日本朝鮮臺灣南樺太南洋群島及滿洲各都市에分店을募集

運動能力ノ增進ニ
カルシオ・コラミン
心臟을强하게하고呼吸困難을恢復시키고危急을救하며元氣를湧出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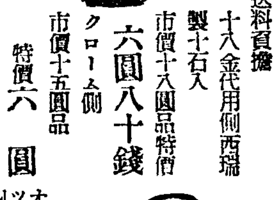
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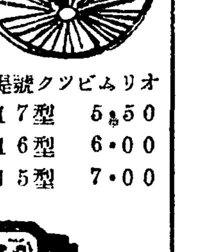
神經衰弱强壯　小兒發育促進
腦力體力强壯劑
フイチン 후이진
植物發芽—生命의힘을나게하는重要成分인有機性燐化合物로서神經疾患을根元的으로治療하고頭腦를明快히하며體內細胞의新陳代謝機能을더하고 體力、氣力을旺盛히하야體重을增加함。
神經衰弱、히스테리ー、健忘症、身體虛弱、虛弱兒童、病後恢復期、受驗期身體의疲勞等에最適함 또結核患者의初期에服用하면衰弱을防止하고病勢의進行을抑制함。
日本總代理店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特約店・東京日本橋區 小西・新・鳥居・三共
文獻은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瑞西バーゼル化學工業會社日本學術部에서郵呈
補血强壯에 鐵フイチン
糖衣로더하서 달게한 粒狀フイチ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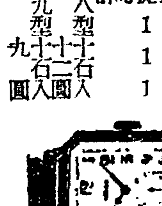
弊洋行特色 兩國海關稅金弊洋行負擔
瑞西 特製
◎特告半打以上先金注文時計一個無代進呈 ◎先金一圓以上送料負擔

十八金代用側鋼瑞西製 十六型十石入 市價十六圓品特價 六圓五十錢
クローム側瑞西製 十六型十石入 市價十圓品 特價五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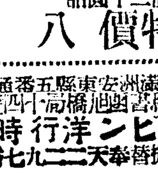


十八金代用側西瑞製十石入 市價十六圓品特價 六圓八十錢
クローム側 市價十五圓品 特價六圓





オリムピツク懷型 四角
オリムピツク號提時計
八型十一石入 17型 5.50
九型十二石入 16型 6.00
九圓 十二圓 15型 7.00



(九型)
瑞西製白金代用側十石入 市價二十圓品 特價八圓
滿洲安東縣五番通 私書函第十四號
ハヒルシン洋行時計部 振替奉天二二九七番

若 劇
六月二日より 晝夜三回 大人五〇錢 學生小人三〇錢
1 港は浮氣風 11·30 3·05 6·50
2 東日大每ニュース 12·55 4·30 8·20
3 かりそめの幸福 1·05 4·40 8·30
(1)東京發聲作品 藤井貢・西條エリ子主演
(3)佛パテ・ナタン作シャルル・ボワイエ・ギャビイ・モルレイ主演

往十里 光武劇場
◇六月一日부터三日間延期興行 劇團天鏡藝術團公演
◇連日滿員謝禮! 料金割引 十錢均一
◇天鏡秘藏劇本!
悲活劇 雪野의鐘 全二幕
悲劇 一夜靑春 全二幕
悲活劇 落花時節 全二幕
海洋劇 海賊船 全二幕
社會劇 檢事와死刑囚 全二幕
開幕 一스켓취、獨唱、民謠、二신스、合唱、舞踊、天鏡喜劇스켓취
◆藝題每日交換上演
主幹 金鏡俊
—每夜八時開演—

細窮民 울리는 支拂命令 勿驚! 二千餘件

釜山法院五個月間의集計 强制執行도九百餘件

【釜山】농촌과 도시를勿論하고 중산계급이하는 날로궁핍화하야 저서 느려가는것은 부채뿐이고 이부채를지불하지못하야 채귀에게쪼들려서 가지각색의 곤난을 당하는자가 격증하는데 부산지방법원의통게에의하면 일월부터 오월말까지에 지불명령(支拂命令)이 이천일백오십이건에 달하고 이중에 이지불명령을 받고도채무를지불하지못햇다고 강제집행을한것이 구백다섯건이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작년동기에 비교하야보면 지불명령은 일백사십칠건의 증가이고 또강제집행도 삼십부건의 증가이라한다

京城—咸興線 淸津까지延長

【淸津】북조선의 발전과 동북만주(東北滿洲)와의 사이에 교통이 밀접하여진 관계로 급격히 번삽해진 함경선의 교통량소화책(交通量消化策)은 철도국과 만철(滿鐵)에서 협의를거듭하는바이제구체안으로 나타난것은 렬차증발(增發)로그내용이주목된다 즉 현재 경성함흥간(京城咸興間)의 오백구렬차와 오백십렬차를청진까지 연장하자는것이라는바 이재회의실현이 의외로빠르지나안흘가한다 실현을기다려 종래로청진과경성사이에 이왕노박게 되지안튼것이 한개느러 세개로되야 상당한완화가 잇슬것으로 기대되고잇다

三關係當局聯合 衛生展覽會開催

【兼二浦】황해도겸이포읍에서는 당지경찰서와 읍사무소와 황해도당국이 련합하야 위생사상보급과 전염병예방을 목적으로오월이십구일 삼십일량일간 위생전람회를 당지보통학교 강당에서 개최하고 특히야간에는 위생영화를상연하야 일반읍민에게 무료로 공개하얏다고한다

朴春浩에게 懲役七年求刑 言渡는六月四日

【新義州】소화십년 이월십삼일평북후창군(厚昌郡)동흥(東興)을습격하야 경찰관과 인민다수를참살한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의습격안내자 본적평남양덕군 동상면동곡리(平南陽德郡東上面東谷里) 박춘호(朴春浩)(二四)에 대한 공판은 지난이십팔일 오후한시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길천(吉川)재판장 주심좌야(佐野)검사관여로 개정하야 징역칠년을 구형하얏는데 언도

學生은盟休狀態 空氣자못陰鬱!

設立者側에서는沈默을繼續 順安義明學校問題續報

【順安】기보=순안의명학교(順安義明學校)의 방매설이 세상에 전해지자 동교학생일동은 상임이사직원회의 허락도업시 설립자오벽(吳璧)씨의면회를 청하야 학생회개최의뜻을말한후 맹렬한기세로 이백여명의남녀학생이 대강당에 회집하야 설립자에게학교를팔면 一、우리학생들은 어떠케처분하시렵니까 二、학교실업부에서 로동을하야 학비의도움을받는 빈한한학생의 로동은 제는 어떠케하겟슴니가 三、저희들의신앙문제는 어떠케해결코저합니까등의호소를 함에잇서서 설립자의대답이 업슴으로인하야 칠북의 시간이 무한정으로 계속하야 해산할줄을모르며 직원실에서는 교실에드러갓다가 랑패를당하고 나온교원들이 손에 출석부와 분필갑을든채로 무엇이라 형용할수업는 불평의기분에싸혀잇서서 교내는 자못동맹휴교의 상태를보이고잇섯다한다

國際線咸北鐵道의 主要性去益擴大 大村滿鐵副總裁의言明

【咸興】함중선철도(咸中線鐵道)문제에 대하야 청진(淸津)에체재중인 대촌만철부총재(大村滿鐵副總裁)와 회견하고 돌아온 림(林)함흥상공회의소두의 귀임 담을드르면 함남도오지대를관통할 함중선(咸中線)의만주접속선(滿洲接續線)에 대하야서는 만철(滿鐵)당국에서도 벌서중요히 고려하고잇는중이다 즉 중부만주(中部滿洲)의개발에 공헌할 철로로서 중강진(中江鎭)(함중선의종점)의 대안모아산(帽兒山)을 지내서 만철과 접속할선로는 이미 계획하고잇다는것이며 도리혀 함중선(咸中線)의부설촉진에 매진하라고 격려의말까지 밧고 왓다는바 장차국제선으로서의 함중선(咸中線)의 주요성은 더욱 중대케되얏다고

나어라! 불어라! 一年에六萬增加

總人口二百卅九萬二千餘名 最近京畿道의繁殖相

최근 경기도(京畿道)에서 조사한 작년말현재의 인구가 금삼일 도보(道報)로 발표되엇는데 이것을보면 조선의 수부인 「대경성」을 포함하고잇는 경기도인만큼 적지안흔 인구가 활동을 하고잇는것이 엿보혀지고 잇다

즉 작년소화십일년말현재의 인구총수는 이백삼십구만이천이백구십륙인으로써 이것을 세별하면일본내지인이십오만삼천칠백이십삼인이고 조선사람이 이백십이만오천삼백칠십구인 만주국인과 중국인이 일만이천칠백사십오인 기타 외국인이 사백사십구인이다 이것을 다시 재작년 즉 소화십년말현재 인구총수에 비하면 륙만일천칠백이십륙인의 증가이다 일년에 륙만명식이나 증가되는 경기도의 인구동태는 자못 활발한 현상이라아니할수업다

兼二浦高野山에 嬰兒屍體遺棄

【兼二浦】지난초하로날 겸이포읍고야산에 난지수일박게안되는듯한 어린아기의 시체하나를내버린것을 소관경찰서에서 발견하고 즉시 시체해부를하는일방범인을 조사중이라는데 흉물의의씨가아닌가하야 이방면으로수색하는중이라한다

綠陰지튼延專球場에 本社後援 中等籠球開幕

中東、靑學、大東、儆新軍各勝 今日最後의榮譽爭奪

조선중등교롱구(籠球)계의 왕좌를 결정할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주최와 본사후원의 제칠회 전조선중등학교롱구대회(第七回全朝鮮中等學校籠球大會)는 신촌정(新村町)연희송림(延禧松林)속에 잇는 연희전문코ー트에서 열리엇나 이대회에참가한 작년도우승교청년회학교(靑年會學校)를 비롯하야 양정(養正)중동(中東)배재(培材)휘문(徽文)전기(電氣)대동(大東)중앙(中央)선린(善隣)협실(協實)경신(儆新)과 실력미지(實力未知)의 경성사범학교(京城師範學校)등의 열두중등학교가 출전한가운데 사일오후세시반부터 각교대표팔십여명선수의 입장식이잇서대회장(大會長)원한경(元漢慶)씨로부터 의미심장한 개회사(開會辭)와 전년도 우승교 청년회학교의 우승기와 우승배반환이잇섯고 참가선수일동을대표하야 청년회학교 김근배(金根培)군의 선서문낭독(宣誓文朗讀)이잇섯스며 심판부위원장권(張權)씨로부터 경기에관한 주의설명이끗난다음 이날의 첫게임인양정대중동전(養正對中東)과 전기학교대 대동상업전(電氣學校對大東商業)전이 각각에이、비코ー트에 나누어 열리바 전적은다음과가트며 금오일 오후두시부터 거행할 준준결승에는 중동대청학(中東對靑學)과 대동대경신전(大東對儆新)이 각각 동장소에서 열릴터이다 (사진 상은입장식 하는 경기광경)

米國올림픽委員 가ー랜드氏歸國

【桑港二日發】올림픽東京招致의恩人으로 朝鮮에도 來訪하엿든米國올림픽委員「가ー랜드」氏는二日入港의淺間丸으로歸國하엿는데氏는다음과가티말한다 아직도 主競技場의 決定을보지못하고 잇다는等 日本內部的紛爭을 外國에 漏說하는것은 極히不利하다 速히 候補地를 決定하야 準備에 着手하기를 바란다

◇第一回戰

中東 39 (25·14 / 13·18) 36 養正

【第一次戰】中東對養正戰은 同日午後三時三十八分부터 張權、孫福俊兩氏審判下에 열린바 兩軍開戰劈頭부터 白熱戰을 演하야前半戰에 十八對十四로 養正軍이 리ー드하엿스나 後半戰에 드러가 中東軍好調를보이여 結局三十九對三十六의 大接戰끄테養正軍을 물리첫다(게임三十分間)

反	得	【中東】		【養正】	得	反
2	0	孫仁福	F	李亨植	5	1
2	10	李明賀	F	崔志善	12	4
0	19	李龍雲	F			
0	2	金萬壽	C	申宗淳	2	4
			C	高圭復	2	0
1	7	金永詰	G	林果南	6	1
0	0	鄭元澤	G	李在馥	9	0
2	1	崔昌欽	G			
7	39				36	10

大東 51 (21·30 / 10·4) 14 電氣

【第一次戰】大東對電氣學校戰은 同日午後三時三十八分부터 李憲、金根信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結局五十一對十四의 『원사이드게임』으로 大東軍이 大勝하엿다(게임三十分間)

反	得	【大東】		【電氣】	得	反
0	4	林順華	F	崔在彥	0	0
1	8	金錫常	F	徐春吉	0	1
0	8	尹興吉	C	尹殷秀	6	0
0	4	崔性緯	G	韓宗錫	0	0
0	12	金景泰	G	山田東	7	1
1	11	崔遠萬	G	梁泰政	1	0
0	6	尹經燮				
2	51				14	2

儆新 37 (26·11 / 12·14) 26 協實

【第二次戰】協實對儆新戰은 同日午後四時四十五分부터 方元淳、張利鎬兩氏審判下에 열린바 結局三十七對二十六으로 儆新軍이 快捷하얏다(게임三十分間)

反	得	【儆新】		【協實】	得	反
1	14	鄭國隆	F	韓晉憲	12	1
0	7	黃材三	F	尹忠默	4	0
1	6	金鍾華	C	金完爕	1	3
4	6	金判祐	G	崔毅喆	7	2
2	4	張元一	G	李麟鎬	2	1
8	37				26	7

靑學 24 (3·21 / 11·11) 22 徽文

【第二次戰】徽文對靑學戰은 同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丁相九、金應鎬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昨年度優勝팀인 靑學軍前半戰에力鬪하야한골차인、二十四對二十二로 徽文軍을壓倒하엿나 (게임三十分間)

反	得	【徽文】		【靑學】	得	反
0	2	車奎相	F	金慶福	7	1
0	0	安益燁	F	洪永綱	1	0
3	8	李明大	F	金壽昌	0	1
1	5	朴道熙	C	金根培	8	2
1	7	申鳳浩	G	金俊泰	2	0
2	0	任相奎	G	姜允鎬	6	1
7	22				24	5

◇準準決勝

大東 28 (11·17 / 4·7) 11 中央

【第三次戰】大東對中央戰은 同日午後五時二十五分부터 孫福俊、金根信兩氏審判下에開催된바 結局二十八對十一로 大東軍快捷하야 準決勝에 드러갓나 (게임三十分間)

反	得	【中央】		【大東】	得	反
0	1	李載鎔	F	林順華	6	0
1	2	李祖永	F	尹興吉	10	0
1	8	白承龍	C	金景泰	6	0
4	0	金象瑞	G	王玉伊	4	2
1	0	姜大觀	G	尹經燮	2	0
0	0	吳二哲	G			
7	11				28	2

中東 57 (39·18 / 8·5) 13 京師

【第三次戰】京師對中東戰은 同日午後五時半부터 李憲澤、方元淳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實力未知의 京師前半戰부터 不振하야 五十七對十三의 『원사이드게임』으로 中東軍大勝하야 準決勝戰에 드러갓다。(게임三十分間)

反	得	【中東】		【京師】	得	反
1	10	李龍寬	F	劉熙祚	6	1
0	0	鄭元澤	F	金振八	4	1
0	19	孫仁福	F			
0	6	李明大	F			
4	11	金萬壽	C	川本	1	3
0	6	金永詰	G	木本	2	2
3	4	崔昌欽	G	松田	0	0
8	75				13	7

儆新 42 (24·18 / 14·11) 25 善隣

【第四次戰】儆新對善隣戰은 同日午後六時二十分부터 金應鎬、金根信兩氏審判下에 열린바 結局儆新軍四十二對二十五로 이겨서 準決勝戰에 남게되엿다 (게임三十分間)

反	得	【善隣】		【儆新】	得	反
0	10	林伯基	F	鄭國隆	8	2
0	2	金仁植	F	金致政	3	0
0	0	孫鎭煥	F	徐弘湘	4	2
0	4	吳永先	C	黃材三	6	0
0	0	林在善	C	崔炳璋	2	0
0	5	金仁植	G	金判祐	8	0
1	4	韓用俊	G	張元一	12	0
			G	李興雨	0	0
1	25				42	4

靑學 23 (14·9 / 11·10) 21 培材

【第四次戰】培材對靑學戰은 同日午後六時二十五分부터 孫福俊、方元淳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兩軍最初부터 難兄難弟의 激戰을 演하야 前半戰에 十對九로 培材가 리ー드하얏스나 後半戰에 드러가 靑學軍에게 壓倒되여 結局二十三對二十一로 培材惜敗하엿다 그리하야 前年度優勝팀 靑學軍은 準決勝戰에 드러갓다 (게임三十分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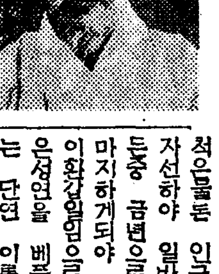
反	得	【培材】		【靑學】	得	反
1	6	徐永錫	F	金慶福	6	2
0	2	李廷九	F	洪永綱	0	1
			F	金壽昌	0	0
1	9	張元國	C	金根培	7	0
2	0	梁鎭春	G	金俊泰	8	0
0	4	宋永昌	G	姜允鎬	2	0
4	21				23	3

耕種畢한昨今 爭議는去益激甚

今年累計벌서一八六件의多數 爭議無風地帶도옛말

【咸興】함남도농무과에서 조사한바를보면 금년일월부터 륙월일까지 오개월동안 소작쟁의(小作爭議)가일어나서법원에까지 조정신청을한것은 일백팔십륙건으로 경종을필한 요지음에잇서서는 도리혀 더욱격화되야가는 주목할현상을 보이고잇다 그런데 이중에서 취하(取下)한것이 십구건 성립이된것이 십구건 재판소조정에붓친것이 오건 합오십삼건박게안되며 아직미제(未濟)가 일백사십삼건의 다수에달하고잇는데 관계농민은 쟁의의미결로 매우초조하고잇스며 각 군소작위원의성의를 매우요망하고잇다

回甲宴을廢止코 五千大金을喜捨 瑞山柳相烈氏盛擧



【瑞山】충남서산군운산면 가좌리류상렬(雲山面佳佐里柳相烈)씨는 인후독실하야 원근친족과인척은물론 인근빈민에게 극진히 자선하야 일반의 칭송이자자하든중 금년으로 륙십일세환갑을 마지하게되야 오는 음력십일월 이환갑일임으로 그의 자녀손들은성연을 베풀라 하얏스나 씨는 단연 이를 거절 하고 즉시 장자경로(庚魯)차자명로(命魯)로하야금 오천여원의 대금을 좌기와가티 각게에 희사할것을 명하야 차자되는 명로씨가 지난삼십일 현금을持參하고 각각 방문 전달하얏다하며 씨는 오는음력오월십일일 생신일을 기하야 멀리 려행할려이라는바 일반의 칭송이 놉다고한다

一、孤兒救濟會에 金百圓
一、雲山面內貧民戶稅代納六百圓
一、예約三百圓
一、普岩面內貧民戶稅代納六百圓
예約五百圓
一、瑞山普校에 ...
一、瑞山邑內各部落에 二百圓
一、靑年團에 三百圓
一、瑞山消防組維持費로 二百圓
一、雲山面內各部落에 三百圓
一、普岩面內各部落에 二百圓
一、仁旨面松谷院에 二百五十圓
一、瑞山學校學費로 四百圓
一、忠淸 ... 二百圓
一、靑年社代에 ... 代
合計五千餘圓

平南農産物中에 棉作도實數調査 今年부터基本方針更正

【平壤】평안남도에서는 종래에는 쌀(米)이외의 농산물의 조사는 극히 남조방식의 것이어서 실수와의 차이가 현저하기때문에 완전한 기준(基準)이될것을 조사하기로되여 위선 금년에는 면화(棉花)에 대한 현실조사를 하기로되여 각군면을 독촉지도하는한편 총독부에서 기술자를 청해오기로되엿는데 도당국으로서는 이와동시에 일반전작(田作)의 생산총액(生産總額) 작부면적(作付面積) 수확량(收穫量)도 정밀한 조사를하여 장래의 기준을 만들고저 재래의 기준을 개신하기로되엿다 그러나 농산물전부의 조사는 대규모의것으로 단시일내에는 조사할수업는 장시일을 요하므로 아프로 예산과 계획을 세워가면서 서서히 실현에 매진하기로되엿다한다

(昌城)는 조선사업도 계정되엿다한다

今年夏期大學 七月廿六日부터

【元山】매년열리는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주최의 하기대학(夏期大學)은 금년에도 칠월이십육일부터 삼십일까지의 오일간 원산천정소학교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여 원산교육회에서는 지금부터 그준비를하고잇는중인데 연연제와 강사는 다음과갓다

國語敎育의根本問題 東京帝大 藤村作
我が一般(特に敎育)用의本質 廣島大學 稻富榮次郞

模範組員表彰

【慈山】금융조합십오주년기념일에 자산 ... 송정산(松汀山)에서모범조합원 김태인(金泰仁)씨에게 표창하엿다한다

平壤府內染病禍

今年一月부터六月三日까지에 感染患者二百十名

【平壤】일월부터 륙월삼일까지 평양부내에서 발생한 전염병환자는 이백십명으로 오십사개정리중에서 사십사개정리까지발생을보앗다 전염병별로보면지프테리아가 일십팔명을필두로 성홍렬(猩紅熱) 오십삼명 『장질부사』칠십오명、적리(赤痢)십팔명이고 류행성뇌막염(流腦)십팔명의 순서이며 가장만흔 발생을보앗든곳은 신리(新里)서성리(西城里)신양리(新陽里)동정(東町)등이며 진향리(眞香里)진정(眞町)외십수개리에서는 한명의 발생도업섯다한다

貯銀平壤支店竣工

【平壤】작년부터 신축공사에 착수햇든 저축은행(貯蓄銀行)평양지점은 준공되여 ... 개업하기로되엿다한다

運餉靑年會定總 【運餉】

평북 룡천군부라면 운향청년회(龍川郡府羅面運餉靑年會)에서는 지난오월삼십일일 오후열시부터 제십팔회 정기총회를 운향유치원(運餉幼稚園)에서 최진영(崔辰永)씨 사회로 개최하고 회원점명 경과보고 규약개정 역원개선을한다음 결의사항에 드러가 다음과가티결의하고 동열두시에 폐회하엿다

一、第一回庭球大會開催의件
二、會員義務金에關한件
三、冬季夜學開催의件

◇新任役員 委員長=崔辰永 委員=金炳一 安鷹根 書記=李午龍 會計=林兌駿 敎養部長=金俊明 體育部長=林義鉉 社交部長=金鐵敏

江西支局主催 面對抗蹴球戰 來十二、三兩日

【江西】본보강서지국에서는 오는단오절을 의의잇게 마지하기위하야 음오월사오량일을 리용하야 농촌의 체육장려와 면내친목을 목적으로 강서군제일회면대항축구대회(面對抗蹴球大會)를 본보강서지국주최로 읍내청년회교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하리라는데 일반은 만히참가하여 주기를바라며 단체는 청년부 소년부일것이라한다 그리고 참가금은 청년은이원 소년은 일원이라고한다

面所位置問題로 關係當局에陳情 慈山面民大會의決議

【慈山】오월삼십일일 오후칠시반시내 한임덕(韓任德)씨집에서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자산면사무소위치 문제에관하야 자산면장이 오랫일전에 신입하얏든것을 면장에게 진정하기로 가결하고 진정위원을 최남수(崔南壽)김창렬(金昌烈)김영순(金永淳)리희명(李熙命)사씨로 선정하고 류월일일오전十시에 면장에게 진정하고 류월이일에는 순천군수에게진정하기로 가결되야 진정위원은 김리택(金利澤)김영순(金永淳)최남수(崔南壽)리희명(李熙命)사씨로 선정하고 오후십일시에폐회하엿다한다

通信에나타난 鎭南浦의發展

【鎭南浦】진남포 우편국의금년도 시외통화상황을보면 사만구 ... 보나 약일할이증가된모양이나 지방별로보면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약간줄고 경기도는 약간 증가되엿다는바 최고위가평양으로 이만삼천구백이십통화이고 그다음은 겸이포、양진남포간에 통화가 격증될으로 금년도에전화선 일회선을증설키로되엿다고한다

地方人事

▲土師盛貞氏(前慶南道知事)退官人事次本報釜山支局來訪
▲土山元範氏(新任全南道會計課長)赴任人事次本報群山支局來訪
▲篠原將氏(群山府尹)新任人事次同上
▲坂倉保人氏(平壤府助役)新任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羅鳳鉉氏(瑞興新設公立普通學校長)赴任人事次本報瑞興支局來訪
▲安昌濟氏(本報咸安支局長)視察次本社來訪
▲阿部千一氏(慶南道知事)榮轉人事次本報大邱支局來訪
▲崔斗煥氏(晉州辯護士)來邱人事次本報大邱支局來訪
▲張山禹二氏(慶南産業組合協會理事)新任人事次本報釜山支局來訪
▲崔仲爀氏(前慶州公普校訓導)三道同普學校轉勤人事次本報慶州支局來訪
▲桂昌祚氏(新義州私立新明學校長)新任人事次本報新義州支局來訪
▲姜學龍氏(平北道會議員)新任人事次本報新義州支局來訪
▲劉致乙氏(鴨江土地改良株式會社)新任人事次本報新義州支局來訪
▲高木幸生氏(遂安鑛業所長)三個年間研究次東京出張中
▲洪命憙氏 新任人事次本報來訪

宣川 바이올린演奏會 (兄弟)

▲時日 六月七日밤
▲場所 宣川會館
▲演奏者 白高山、白海帝兄弟
◇主催 平壤PMS
◇後援 朝鮮日報宣川支局

興南 北朝鮮蹴球大會

▲時日 六月六日午前九時定刻
▲場所 興南內湖海岸埋立地
◇主催 興南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興南支局

平壤 全發聲 聖書大會

▲時日 六月八、九兩日夜八時
▲場所 崇專大講堂
◇主催 C、E平壤聯合會社交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長篇小說 어머니 【55】

李箕永作 鄭玄雄畫

第二、母性篇 죄와벌 (一)

인숙은 시룽업시 그날그날을 보내는중에 덧업는세월은 낫과밤이 갈마드려서 어느듯 그달금음도 다지나고 이월조생이도라왓나。

인숙은 어서해동이 되기만기다렷나。날이 따뜻하면 월영이를바그로 업고 나올것이 아닌가! 그러면 보고십픈 딸을만나볼수잇기때문이다。

인숙은 오직 그생각에 꿀을 하여서 모든시름을 잇고 거기에다희망을 부처산나십헛나。참으로 월영이는 그동안에 얼마나컷는가? 하두바쁘 그뒤의몰꼴을보고십헛나。

그래、그는 요지음도 한결가티그집문압흐로 내왕을한다。그는오늘이나 나올까、내일이나나올까하고 아침저녁으로 지나갈적마다 그근처를주의해 보앗다

인숙은 월영이를 만나볼때에 다른 사람에게 수상한눈치를 채이지 안호랴고 미리부터그근방 아이들과 사괴여 동무요를 녹기엿다。그는 마치 전도부인과가튼 태도를꾸며 가지고 토요일날은 그림엽서를 어더가 끌고루 논아주며 예배당으로 오라고 꾀이엿다。그리고 엇던때는 과자와 작난깜도 논아 주엇다。

인숙은 지금도 한나절의 일을 마추고 집으로 도라오는길인데 발길은 제절로 그근처를 드려노핫다。햇볏치 따뜻하다!

『아주머니! 얘들아 아주머니가 저기 온나!』

아이들은 인숙이를 발견하고 사방에서 우루루 뛰여온다。

『아주머니 오늘은 엽서 안주서요?』

일상보든 큰아이가 담딋헤서 놀다가 쪼처오며 손을내민다。

『웨안주어、주지!』

『아주머니나두 한장주서요!』

『오ー주지! 지난주일에 예배당에 갓섯나?』

인숙은 발길을 멈추고서 책보를 끌는다。

『난 갓서요ー 쟤안갓대요』

하고 먼저아이는 다른동며병이를 손가락질한다。하나 둘식 모여드는 조모태이들은 인숙이가책보 끄르는것을 보더니만

『나한장 주서요!』

『나두한장 주서요!』

하고제각금 손을벌리며대든나。

『가만 잇서……끌고루 줄터이니。이러케 싸개를 노면 어떠케 줄수가 잇서야지』

인숙은 드리덥비는 애들을 딸로 느리세워노코 한사람에한조각식을 차례로 논아주는데 무라기 충중에는 간난이를 업은 커드란 계집애도 끼여섯다

그는 처음보는 아이다。인숙은 그에게도 그림엽서를한장주면서 유심이 처다보나가

『넌 어듸사니?』

하고 무러보앗다。

『요ー위큰대문집에요』

계집애는 한손을 처늘어서그편을가리친다。

『이애가 네동생이냐?』

『아ー니요』

『그럼?』

『안집 아기여요』

계집애는 고개를 숙이며 잡간 얼골을 붉힌다。

『오ー 그래!……일홈이 뭐다니?』

『진영이여요!』

『진영이……오ー우리 진영이는 무엇을 주나……머슴앤가、계집앤가?』

『계집애여요』

인숙은 어느듯 자기도 모르게 고사리밥가튼 어린애의 손을 쥐고 흔드럿다。

나은지 불과 삼사일동안밧게는 더보지못한 간난애엿스되 어더가 틀림업시 자기가 나은 월영이와 방불하엿다。

그는 자기의 자식인줄을알자별안간 눈물이 왈칵! 고이며 가슴속에서 두방망이질을 하엿다。

월영이는 그동안에 몰라보도록 컷다。두볼에 살이올랏다。털모자를벗겨보니 배안의 머리가제법기러서 압이마를 더펏나。

지금 아무도업스면 당장 안꼬서서 자기가 친모라는것을그에게 말해주고십나 그리고 자기의 젓꼭지를 물녀보고도 십헛다。

『자ー간난이도 하나 주어야지 아기는 작난깜이나 하나 줄까!』

인숙은 그림엽서를 큰애들에게 최다 돌녀주고 나서는 미리 예비해가지고 잇든 세루로 끄이드로만든 조고만 인형을 끄내서 손에 쥐여 주엇다。갓난이는 두눈을 깜박일뿐! 그는아직 무엇을 칠힐이 업섯다。

인숙은 그것이 안타까웟다。

『너도 예배당에 다니니?』

『아니요』

그러자 어린애의 품아페언젓든 인형은 땅바닥에 떠러젓다 인숙은 그것을 다시 주어주며마주보는데 해죽이 웃는눈에는 눈물방울이 어른거렷다。